

월요광장

그러니까 기적은...



정 봉 남
순천 기적의도서관장

도서관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마당의 회랑 너머엔 두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 ‘기적은 시작된다’는 표지석이 있는 소나무는 개관 기념으로 심은 나무다. 10주년 기념으로 심은 금복서 아래엔 ‘나무를 적시는 이슬처럼’이라는 돌이 놓여 있다. 기암석이 뜻깊은 나무 그늘에 기대어 도서관을 만들고 가꾸어 온 사람들을 생각한다.

도서관이 열네 살 생일을 맞았다. 돌아 보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꿈을 차곡 차곡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으니 모두들 한마음으로 기뻐했다. 아이들은 입구에 세워 둔 안내판에 또박또박 축하 쪽지를 남겼고 자원봉사자들은 밤새우며 준비한 책 공연을 멋지게 보여 주었다. 오래전 이터에서 기쁨을 누렸던 분들은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까.

일상의 평화가 넘치는 도서관에서 아이들은 자라고, 꽃 같은 아이들과 더불어도

서관은 나이테를 늘려간다. 지금껏 그래 왔던 것처럼 어린이도서관다운 꿈을 잃지 않고 천천히 나아가길 것이다. 순정한 마음으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들일 것이다. 아이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응원하면서 어떻게 도움을 고민할 것이다. 여기 오는 누구라도 반갑게 맞아 주고 친구가 되어 줄 것이다. 도서관이 누군가에게 무엇일 수 있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고 싶다.

도서관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인다. 사람이 많을수록 신경 쓰는 것은 여기 오는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마시는 물이나 화장실, 청소, 사람들의 동선, 휴식 공간,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 책 읽는 사람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영역을 존중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주말이면 이용자 두 배로 넘치는데 매번 신나고 즐겁게 흐트러지고 보람차게 큰일들을 해낸다. 그 힘든 한마음으로 움직여 주는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날마다 풀 베고 대나무 주변을 깔끔하게 가꾸어 주는 동네 어르신, 웃으면서 도서관 곳곳을 반짝이게 닦아 주는 엄마들, 도서관 홍보물을 제작 만들어 내는 재주꾼들, 마당과 행사장에 꽃으로 우리를 기분 좋게 해 주는 정원가드너 선생님, 감동의 공연으로 지친 마음을 아루만지는 책나라지킴이들, 하루라도 자기가 안 오면 도서관 무너지는 줄 아는 아이의 입구 신발 정리까

지 척척 손발이 맞아 움직일 때 비로소 도서관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굴러간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그러니까 기적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으키는 것’이다. 함께라는 것,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것, 서로를 의지하고 고마워하는 것,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했느냐를 경험하는 시간들 통과하며 시민들은 성장해 가고 있다. 며칠 전 흑두루미가 이어 준 자매도시 일본 이즈미시 시장님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가 일본과는 다른 도서관의 운영 등에 대하여 대단히 감명을 받았습시다.” 잊지 않고 오가는 편지 속에 우정이 담겼다. 또 국제 교류 행사로 진행한 어린이문화포럼 이후 일본 신문에는 ‘한국의 기적의도서관’이라는 칼럼이 실렸다. “기적의도서관에서는 어린이에게 독서의 기회를 넓힐 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1970~80년대의 기세를 방불케 하는 에너지가 부럽게 느껴졌다”는 내용이었다.

도서관의 자력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때려적인 공간을 가꾸는 사람들의 열정과 독심과 변화에 있다. 도서관 곳곳에 스며 있는 묵묵한 시민들의 흔적이 눈물과 땀의 결정체라는 것을 안다. 탐스러웠던 시간들, 물방울 같은 사람이 있었음을 기억하겠다.

자원봉사 활동은 고생과 보람이 한 몸이다. “이 어려운 걸 자주 해냅니다. 우리가”라고 말할 때의 자부심에 기대어 도서관의 시설, 장소, 공간, 문화, 프로그램, 운영 체계, 협력, 서비스, 관계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간다. 지속 가능한 사회의 모델로 시간의 축적과 시민의 역량, 균등한 접근성에 대해 고민한다. 공공 서비스 현장에 생기를 불어넣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은 오래오래 우리 곁에 존재할 것이다.

어린이의 삶을 가꾸는 일을 확산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열정이야말로 도서관 건립의 정신을 진정으로 기억하는 것이며 책임과 연대의 사건으로 유의미하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책과 사람들,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힘써 사랑하고 지켜 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가. 생각이 달라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는가를 물어안고서.

어린이와 도서관을 사랑하는 당신이 소중하다. 삶의 흔적들이 똑똑 떨어진 자리에 서서 온기를 더하며 본다. 그리워하고 안아 주고 눈물 글썽이며 만나는 사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힘 얻고, 보이지 않아도 소중히 것들을 함께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 문을 닫으며 뒤돌아보면 거기 여운처럼 사람의 향기 머물러 있다.

법조칼럼

소년법에 대한 소고



황 준 홍 변호사

최근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소년법 및 소년법의 처벌을 규율하고 있는 소년법에 관해 여론의 관심이 높다.

그 관심의 주된 이유는 소년법이 저지른 범죄가 전문화·흉포화하고 있음에도 소년법에 대한 연령 제한 및 최고 법정형의 제한 등으로 인해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형사처벌의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소년법의 전면 폐지, 소년법상의 소년의 연령이나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 또는 소년법 처벌상한의 제한 폐지 등 소년법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 앞서 우리 사회는 이미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미약하다는 여론의 밀바탕 위

에서 일반 형법상 법정형을 상향한 바 있다. 소년법에 대한 엄벌화의 경향도 선진국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소년법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논의는 불가피하며 당연한 시대의 흐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만, 필자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법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합의와 이에 관한 입법이 이뤄진다 해도, 여전히 소년법은 성인법과는 달리 접근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싶다.

소년법에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소수이며, 성인이 저질렀더라도 선고형으로 벌금형 정도의 낮은 형을 받는다. 소년법이 다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성인이 저질렀더라도 통상적으로 벌금형 정도를 받는 범죄를 소년이 저질렀고 이때 소년법이 폐지돼 소년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위 소년에게는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또는 부모의 존부에 따라 형사 처벌이 달리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해 위 소년에게 벌금형이 부과됐을 경우 경제력이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가 벌금형을 대신 납부해 위 소년은 실질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소년법의 형사 처벌의 강화를 위해 소년법을 폐지한 결과가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비단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고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경제력이 있는 부모를 배경에 둔 소년의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금전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는 부모를 가진 소년이나 부모가 없는 소년보다 가벼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필자는 과거 한 피해자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두 명의 소년 중 한 명의 면호를 받는 적이 있다. 필자가 변호를 맡지 않은 소년은 경제력이 있는 부모가 있었고, 그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필자가 변호를 맡은 소년은 부모로부터 오래전 연락이 끊긴 상태여서 금전적인 피해 회복은 생각할 수 없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합의가 이뤄진 소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필자가 변호하는 소년에게는 절호에 대해 회복이 없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이에 필자는 소년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계시지 않

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었다고 변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소년법에 대한 성인과 동일한 처벌 이행은 부모의 지위, 능력이 자녀의 지위를 결정해버리는 사회적으로 부조리하다고 여기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칙이 소년법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요즘의 소년들은 과거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발육 속도가 빨라졌다 한다. 그러나 이것이 주위 환경적 요소로부터 독립된 주제로 소년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소년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인과 동일한 지위나 능력이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성인은 소년들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를 잊고 성인이 소년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만을 고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굳이 소년법은 교화의 대상이라고나 소년법은 보호주의에 입각해 처우해야한다는 이론적 설명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소년과 성인의 현실적인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접근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법에 대한 ‘숨방망이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 고

걱정하지 마라



이 세 천
전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이세들과 대국한 알파고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분들이 적지 않다. 기계가 아닌 사람의 뇌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면서 뇌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이야기도 회자된다. 자칫 뇌과학을 지나치게 신봉하여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걱정하기도 하지만, 뇌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저질렀던 실수를 생각하면 부끄러워진다.

알리슨 바치럼 힐러리 클린턴은 1996년 브리니어를 방문했을 당시 저격수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 몸을 낮추면서 비행기에서 내려갔다고 텔레비전에서 증언했다. 그런데 당시 동영상을 보면 말과 함께 환한 얼굴로 비행기를 내려와 화동(花童)으로부터 꽃다발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거짓말이 대통령 후보 낙선에 큰

영향을 끼쳤다. 왜 잘못된 기억을 하는 것일까? 알고 보면 우리 뇌는 사진기처럼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 중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기억한다고 한다.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다른 기억과 섞여 왜곡되기도 한다.

4차 혁명 이후의 미래에 대하여 기대 못지않게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이 많다. 특히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는 영향으로 직장이 사라지기도 하고 여러 직업을 전전해야한다니 가보지 않은 길이 어서인지 자녀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또는 가끔 지인이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을 혼자 곰씹다가 온갖 상상을 덧붙여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가지고 있다고 부풀리기도 한다.

걱정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며, 30%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12%는 자신과 상관없고, 10%는 사실이 아니며 오직 4%만이 정말 걱정할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은 유독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 심한 경우 우울증으로까지 발전한다는데, 대체로 희망적인 생각은 단편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대뇌(대뇌 피질)는 주로 이성적이

고 합리적인 판단에 관여하고 안쪽에 있는 변연계는 감정적인 정서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연결해 주는 것을 파페츠회로라고 한다. 이 회로의 흐름 과정에서 생각을 이어가고 덧붙이면서 부정적인 생각은 점점 커진다고 한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면 점점 더 감정이 두렵게 덧붙이며, 감정의 흐름이 반복되는 동안 과거에 쌓였던 부정적인 기억들이 되살아나 다른 생각으로 번지고 감정은 더욱 악화된다.

화를 내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일로부터 말다툼을 시작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괴심해서 참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화가 더 커지는 이유도 이 파페츠회로의 부정적인 순환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심해지는 부정의 순환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은 없을까? 심리학자들은 서둘러 다른 생각으로 전환하라고 권한다. 갑자기 생각을 바꾸기 어려우면 바람을 쐬거나 부담 없이 걷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한다.

‘내가 헛된 생각에 빠져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구나’ ‘내 감정이 격해지고 있구나’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원래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소용돌이에는 생각이 가라앉으면 첫 생각(선입

견 등)에서 벗어나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여유가 생긴다.

옛 선현들은 명경지수(明鏡止水)라는 말을 사용했다. 혼탁한 물(생각)이 움직임을 멈추고(止水) 밀로 침잠하여 거울처럼 맑아지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지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음의 흐름을 조용히 바라보면 자신의 마음이 정돈되는 모습도 느낄 수 있다.

화가 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도적으로 생각을 잊고 다른 생각을 떠올리려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분노의 감정이 점점 사라진다. 분노의 감정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지만 한번 빠져나오면 마음이 맑아진다. 어쩌면 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끼는 것은 전두엽이 발달한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유리할 것이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 때에도 반드시 적절한 방안을 찾으리라는 믿음이 있다면 삶이 한결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일본의 한 선승은 제자들에게 편지 한 통을 남기면서 ‘함부로 개방하지 말고 꼭 필요할 때 뜯어 보아라’고 하며 임종했다.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제자들이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에 처하게 되었다. 스승의 편지를 개봉하니 단 한 줄이 씌여 있었다.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될 것이다.”

社 說

도로 포장률 쫓겨...전남 SOC 예산 증액돼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소위원회를 가동해 본격 심사에 착수하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남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만큼은 반드시 증액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로 포장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는 등 SOC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남도의회 민병홍 의원이 전남도로부더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 등 전남 지역 도로 포장률은 8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대구·광주·대전이 100%, 울산·인천은 98%로 높았다. 하지만 경남(90%), 전북·경기(91%), 경북(92%) 등은 낮았다. 전국 평균은 92%였고 전남은 유일하게 90%에 못 미쳤다.

시·군 도로가 포함된 전남 시·군별 도로 포장률은 79%로 더 낮았다. 나주(74%)와 여수(75%), 목포(77%), 순천(78%) 등은 70%대 머물렀다. 이런 상

황에서 전남의 내년 국비 확보율은 77.4%로 17개 시·도 중 13위에 그쳤다. 7조 1148억 원을 요구했는데 5조 533억 원만 반영된 것이다.

지난 9일 열린 전남도와 국민의당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SOC 예산이 주요 의제로 부각됐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2023년 완공을 위해선 내년에도 3000억 원이 반영돼야 하는데 455억 만 확보된 상태다. 이에 국민의당은 ‘호남 SOC 예산 1조 6000억 원 증액’을 목표로 제시했다.

SOC 예산 대폭 삭감은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및 복지 확대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차별로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호남에 일률적으로 삭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전략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선대 임시 이사 시민사회 공감할 수 있도록

조선대학교 구성원들이 민립 대학의 정체성에 부합한 인사들을 임시 이사로 파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임시 이사 파견권을 가진 교육부가 조선대 설립의 역사성과 학내 민주화 과정 등을 이해하지 못해, 자칫 대학의 화합을 해칠 인사라 과거 대학 행정을 중단했던 인물을 선임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교육부는 조선대 이사회의 의사 정족수 부족에 따른 임시 이사 파견 결정 이후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18명의 임시 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했으며, 사학분쟁조정위는 빠르면 이달 말 9명의 임시 이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조선대와 지역 사회가 임시 이사 후보의 면모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학내 민주 세력과 대립 관계에 있는 옛 경영진이나 타 사립대 1월 오바마의 독서열에 대해 이렇게 기사회했다. “언어의 마술’에 관한 이해와 독서야말로 그가 미국인들과 자신의 생각을 소통하는 보기 드문 능력뿐 아니라 오바마 자신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독서가로는 단연 DJ를 빼놓을 수 없다. 1980년 수

으로 구성된 ‘제2기 이사 즉각 퇴진 및 국민 공익형 이사회 실현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최근 시민사회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모두 18명의 임시 이사 후보 명단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들 후보에는 대학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범대위·총동창회·공익형 이사 후보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가 조선대 범대위의 임시 이사 후보 명단을 수용하거나 최소한 지역이 경계하는 인물만을 배제하길 바라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범대위는 특히 7만2000여 호남인의 성금으로 설립된 조선대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정이사 체제로 돌아선 2010년부터 최근까지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으로 축적된 대학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임시 이사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분쟁이 끊이지 않는 조선대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명망 있는 인사를 선임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는 정치인이기에 앞서 작가였다. 회고록 ‘제2차 세계대전’(6권)은 그에게 노벨문학상(1953)을 안긴 대표작이다. 처칠은 청년기부터 ‘로마제국쇠망사’ 등 역사서를 탐독했다. 세상을 보는 탁월한 안목과 격조 있는 문장은 폭넓은 독서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미국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모든 독서가가 지도자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지도자는 독서가다”라고 했다. ‘리더(leader)는 리더(reader)’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물론 국정을 책임지는 지도자는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나 경험

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혜와 통찰력을 얻기 위해선 독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중앙 정치 무대 경력이 일천했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독서 덕분이었다. 뉴욕타임스는 2009년 1월 오바마의 독서열에 대해 이렇게 기사회했다. “언어의 마술’에 관한 이해와 독서야말로 그가 미국인들과 자신의 생각을 소통하는 보기 드문 능력뿐 아니라 오바마 자신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바는 일에서 해방되면 아마추어 역사학자가 되리라”는 생각이 한 적도 있다.”

최근 포스트 이진우 석좌교수를 비롯한 26명이 ‘대통령의 책 읽기’를 펴냈다. 대통령에게 권하고 시민이 함께 읽는 책 읽기 프로젝트의 하나다. 저자들은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며 “그렇게 만들어진 책과 사람이 세상을 만든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불통과 무능이 초래한 리더십의 폐해를痛切히 경험했다. 대통령이 비롯한 지도자들이 시민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여민독서’(興民讀書)의 문화가 꽃필 날을 기대한다.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대통령과 책

無 等 鼓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는 정치인이기에 앞서 작가였다. 회고록 ‘제2차 세계대전’(6권)은 그에게 노벨문학상(1953)을 안긴 대표작이다. 처칠은 청년기부터 ‘로마제국쇠망사’ 등 역사서를 탐독했다. 세상을 보는 탁월한 안목과 격조 있는 문장은 폭넓은 독서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미국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모든 독서가가 지도자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지도자는 독서가다”라고 했다. ‘리더(leader)는 리더(reader)’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물론 국정을 책임지는 지도자는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나 경험	갑 중 의회록 여사에게 차임을 부탁한 책의 목록은 실로 다양했다. 아스퍼스의 ‘니체와 기독교’, 앙드레 모루아의 ‘미국사’, 뒤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 ‘로마제국쇠망사’ 등 역사서를 탐독했다. 세상을 보는 탁월한 안목과 격조 있는 문장은 폭넓은 독서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미국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모든 독서가가 지도자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지도자는 독서가다”라고 했다. ‘리더(leader)는 리더(reader)’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물론 국정을 책임지는 지도자는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나 경험
옛 선현들은 명경지수(明鏡止水)라는 말을 사용했다. 혼탁한 물(생각)이 움직임을 멈추고(止水) 밀로 침잠하여 거울처럼 맑아지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지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음의 흐름을 조용히 바라보면 자신의 마음이 정돈되는 모습도 느낄 수 있다.	갑 중 의회록 여사에게 차임을 부탁한 책의 목록은 실로 다양했다. 아스퍼스의 ‘니체와 기독교’, 앙드레 모루아의 ‘미국사’, 뒤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 ‘로마제국쇠망사’ 등 역사서를 탐독했다. 세상을 보는 탁월한 안목과 격조 있는 문장은 폭넓은 독서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미국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모든 독서가가 지도자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지도자는 독서가다”라고 했다. ‘리더(leader)는 리더(reader)’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물론 국정을 책임지는 지도자는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나 경험
화가 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도적으로 생각을 잊고 다른 생각을 떠올리려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분노의 감정이 점점 사라진다. 분노의 감정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지만 한번 빠져나오면 마음이 맑아진다. 어쩌면 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끼는 것은 전두엽이 발달한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유리할 것이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 때에도 반드시 적절한 방안을 찾으리라는 믿음이 있다면 삶이 한결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최근 포스트 이진우 석좌교수를 비롯한 26명이 ‘대통령의 책 읽기’를 펴냈다. 대통령에게 권하고 시민이 함께 읽는 책 읽기 프로젝트의 하나다. 저자들은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며 “그렇게 만들어진 책과 사람이 세상을 만든다”고 강조한다.
일본의 한 선승은 제자들에게 편지 한 통을 남기면서 “함부로 개방하지 말고 꼭 필요할 때 뜯어 보아라”고 하며 임종했다.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제자들이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에 처하게 되었다. 스승의 편지를 개봉하니 단 한 줄이 씌여 있었다.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될 것이다.”	우리는 불통과 무능이 초래한 리더십의 폐해를痛切히 경험했다. 대통령이 비롯한 지도자들이 시민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여민독서’(興民讀書)의 문화가 꽃필 날을 기대한다.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독서가로는 단연 DJ를 빼놓을 수 없다. 1980년 수	우리는 불통과 무능이 초래한 리더십의 폐해를痛切히 경험했다. 대통령이 비롯한 지도자들이 시민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여민독서’(興民讀書)의 문화가 꽃필 날을 기대한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